



4대강 살리기 불자 '결집'

4대강 수륙대재위 17일 조계사 인근서 수륙대재 봉행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참회하고 뭇생명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추진위원회(상임추진위원장 최후, 이하 추진위)는 3월 31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7일 오후 3시 조계사 및 인근 우정국로 일대에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는 1만 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행사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불교여성개발원·조계종 중무원조합 원우회·포교사단·참여불교재가연대·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불교단체를 비롯해 조계사·운문사·봉녕사·도선사·화계사 등 20여 사찰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조계종단 공식 환경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와 함께 수륙대재를 봉행해 종단 내 공신력을 높이고,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의 실상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화 스님(조계종 전 교육위원장·신경림 시인의 시 낭송, 수륙재, 문화공연, 결의문 발표, 21배 서원기 등 행사를 진행한다.

추진위는 4대강 살리기 운동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진위는 전국 사찰에 수륙대재에 앞선 14일 조후부 법회에서 4대강 살리기와 뭇생명에 대한 참회를 주제로 법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 ### 4대강을 파헤치면 생기는 문제들
1. 국민의 심성을 파괴한다!
 2.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3. 법률과 국가규정이 사문화 된다!
 4. 정치가 후퇴한다!
 5. 사회 갈등이 조장된다!
 6. 지역사회의 안정을 무너뜨린다!
 7. 국토 체질이 기형화 된다!
 8. 명물 농수산물들이 사라진다!
 9. 안개가 증가하는 등 기후가 불안정해진다!
 10. 역사유적과 문화가 훼손된다!
 11. 탁도 증가로 수질악화와 식수대란 발생한다!
 12. 홍수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13. 습지가 사라지며 하천생태계가 파괴된다!
 14. 지하수위가 하락한다!
 15. 엄청난 환경비용이 발생한다!
 16. 국가예산 낭비, 복지정책이 퇴보한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전국사찰에 배포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는 포스터.

전국 사찰에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단일 문구의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남한강 여주보 여강선원(선원장 수경)에 이어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지역거점 선원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뭇생명에 대한 참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상임추진위원장 최후 스님은 "4대강 살리기는 단순히 강과 몇 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체 살리기 운동"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생명파괴가 자행되는 질박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추진위는 동참 호소문에서 "혈세를 쫓고 이익을 쟁기려는 집단의 물욕에 눈이 멀어 정부는 멀정히 살아 숨 쉬는 강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 뭇생명이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4대강 반대를 위해 불교계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종교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 www.choice33.net)은 최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 2000부를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또, 3월 23일 여주 여강선원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4대강 개발 현장에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28일 경남불교평화연대와 4대강 저지낙동강국민연대는 경남 창원군 함안보 낙동강 일대에서 '지리산 파괴와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생명평화 지키기 천지명양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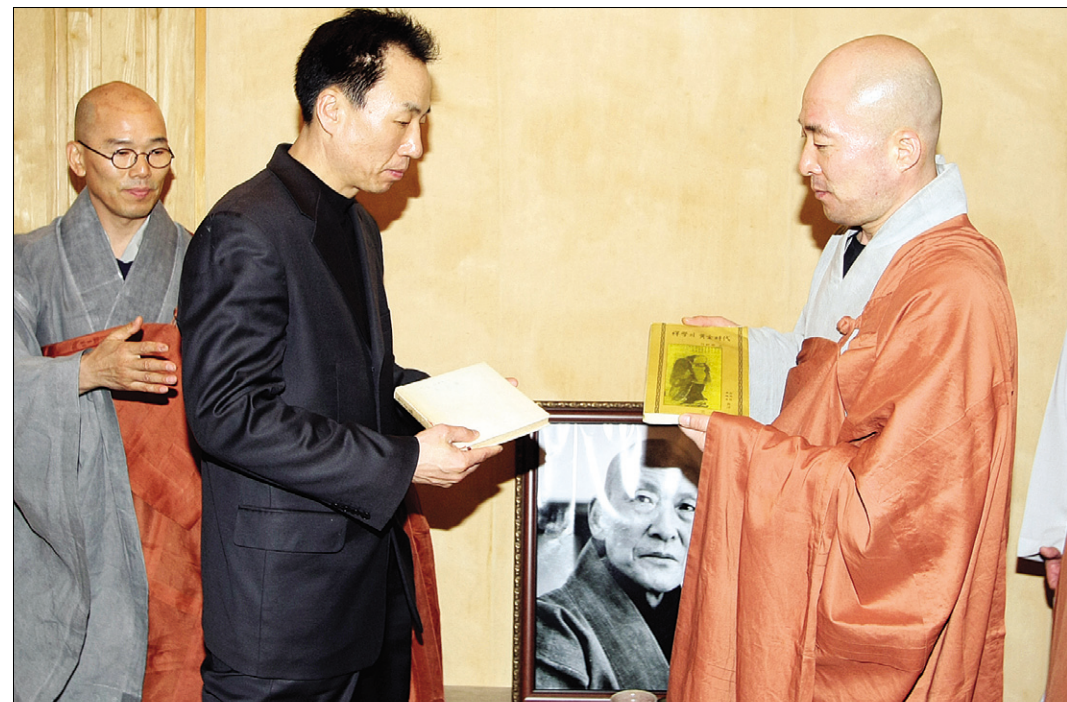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는 4월 5일부터 남한강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대강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 대책 위원회'는 4월 24일, 5월 1·8·15일 4대강 공사현장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 19일에는 천주교가 시국미사를 개최한다.

이상연 기자

길상사에 법정 스님 기념관

법정 스님 유지 따라 신문 소년에게 책 전달... 저서 내년부터 절판



법정 스님의 삼척 덕진 스님(오른쪽)이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라 3월 31일 서울 길상사 향지사에서 스님에게 신문매달을 했던 강씨에게 스님의 머리맡 책 6권을 전달하고 있다.

법정 스님의 유품을 한 자리에 모은 기념관이 길상사에 들어섰고, 이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대중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척 덕진 스님은 3월 31일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3재 봉행 후 "법정 스님은 책, 가사, 장삼, 펜, 진필원고, 미니CD플레이어 등을 남기셨다. 책을 비롯한 스님의 유품은 길상사 내 기념관을 설립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념관에 들어설 법정 스님의 기념관은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길상사 내 기존공간을 활용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1970년대 법정 스님에게 '신문을 전달하던 꼬마'가 스님의 머리맡에 있던 책을 전달 받으면서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덕진 스님은 법정 스님의 3재 봉행된 3월 31일 서울 길상사 향지실(行持室)에서 법정 스님이 즐겨 읽던 책 6권을 '신문을 전해준 꼬마'에게 전달했다.

'신문을 전달하던 꼬마'는 1970년대 초 법정 스님이 봉은사에서 머물 당시, 사찰에서 공부하던 어머니와 살았던 강모(49·봉은사 신도) 씨다. 독실한 불자인 그는 현재 남양주 봉은사에서 기도 수행 중이다.

강씨는 법정 스님에게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해 이름과 얼굴의 비공개

를 요구했다.

강씨는 "스님이 유언에서 '어린 소년을 찾아 책을 전달하라'고 밝힌 것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시던 스님께서 심부름했던 소년에게 진 빚을 다 갚으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며 "이 책들이 사부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여 년을 스님에게 신문물을 전달했다. 어느새 '꼬마'에서 지천명의 나이가 된 강씨가 회상한 스님의 모습은 지금껏 알려진 것과 다를 없었다.

"법정 스님은 당당하고 강직하며 고고한 분이셨습니다. 하루 3기 우공양왕 한 스님은 행진(行進)을 차지 않고 공양을 했을 때는 바로 참회를 하였고, 한 여름에도 승복을 팔복 위로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위엄은 스님이 법당에 들어오시면 순간 고요해 질 정도였습니다. 스님의 엄격함이 봉은사의 기강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강씨가 기억하는 스님은 강직했던 품성과 계율을 철저히 지켰던 선사였다. 또, 자연을 사랑했고, 아버지 지와 같은 따뜻함을 가진 보살이었다.

"신문이나 우편물이 종무소로 오면 다래현의 큰 문을 열고 들어가 스님에게 신문물을 전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스님이 머무시던 다래현에

들어가는 것은 저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개구쟁이였던 저는 방청소나 책 정리를 하거나 스님의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눈이 오면 눈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눈이 녹아서 지저분 해지면 그제서야 치우시곤 했습니다."

강씨는 어느 날 홀연히 봉은사를 떠난 스님을 입적 전까지 만나지 못했다. 입적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야 스님을 찾아본 것에 강씨는 못내 죄송스러워 했다.

이날 덕진 스님이 강씨에게 전달한 법정 스님의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강승용 옮김, 이레), <선학의 황금시대>(오경용 지음, 삼일당), 르네 젤러의 <생태취미의 위대한 모험>(안윤영 역, 흥성사), <선사>(석지현 편역), <백암록>(안동림 역주, 현암사),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등 6권이다.

6권의 책에는 낙관·글씨 등 스님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봉사 시민단체인 맑고향기롭게 관계자는 "법정 스님의 저서를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유통하고 절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석헌기념사업회는 법정스님의 미발표 원고 '악에 관한 것' 전문을 3·4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글=이상연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무비 스님 동국역경원장 취임

조계종 3대 지표의 하나인 역경(譯經)을 담당하는 동국역경원장에 무비 스님(조계종 전 승가대학원장)이 임명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은 4월 7일 오전 11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신임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무비 스님의 역경원장 임명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이 3월 31일 봉선사에서 월운 스님을 예방했을 때, 월운 스님이 무비 스님을 추천해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전 역경원장 월운 스님의 동국역경원 명예원장 추대도 있었다. 조동섭 기자

민추본, 조불련 대표단 초청기로

신계사 성지순례 조속한 재개 합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3월 30일 개성에서 조선 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 남북불교교회는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의 조속한 재개 △부처님오신날 공동법회(남측 조계사, 북측 광범사) 봉행 및 남북공동발원문 채택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낙성 3주년 기념법회 공

동행 등을 통해 남북화해와 단합, 평화로 위해 남북불교도들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불교교회는 6월 8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10주년 기념법회에 조불련 대표단을 초청할 의향을 전달하는 한편, 10년 간의 남북불교간 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남북불교도합동대토론회'를 남북간 정세추이를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23 새 연재-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14 정진통합가-묘실상선원 ▶4 인터뷰-지성 통리원장 · 목탁 스님

"부처님진신사리만다라라는 부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바라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승광사 전지암 조실 환안스님 極大回 法眼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화한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와 같이 부처님의 큰 지혜와 복덕을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건강·합격·취업·스트레스해소 여러분을 소원성취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성화(聖畵)가 만다라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사리입니다.
만다라와 사리를 함께 표현한 것이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후라존자의 사리를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해 만다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우주의 신비로운 생기가 걸어놓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이런곳에 꼭 필요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서재와 다실
- 건강을 기원하는 가정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의 공부방
- 계약과 입찰이 많은 건설회사 대표의 집무실
-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분
- 개업 선물, 승진 선물, 집들이 선물, 불사회향 선물

제품규격	A형 60cm X 60cm, 4Kg	B형 80cm X 80cm, 6Kg
	C형 95cm X 95cm, 10Kg	D형 105cm X 105cm, 12Kg

불·교·미·다·어·연·구·소 **종오합장** 제품가격문의
121-8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92번지 가원 201호
대표전화 02-3275-0108 핸드폰 010-2022-0108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의 모든제품은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한 생명력을 얻은 성물(聖物)입니다